己未大同譜 序

人類의 出現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는 아즉도 明確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중에서 한 氏族도 血統上으로는 응당 헤아리기 어려운 悠久한 來歷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人間이 記錄된 歷史를 가지게 된지는 四·五千年에 지나지 못한 것이요、 單一한 氏族이 千餘年의 歷史를 가졌다는 것은 여간 稀貴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譜學이 가장 發達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대개 記錄이란 여간 소중한 것이 아니니、 그 有無로써 ①文野를 區別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全義·禮安李氏는 지금으로부터 千餘年 전에 王建太祖가 高麗王朝를 創建할 때에 이를 도와 無難히 成功하게한 建國功臣으로서 諱棹께서 비로소 創族의 始祖가 되셨고、 그후 子孫이 繼繼承承 내려오며 많은 賢人·君子·顯官·碩學이 輩出하여、 槿域의 名門 巨族으로 名聲을 널리 世上에 떨쳐 왔다。 또 우리 李氏門中에 清白吏가 많았다(七位)는 것은 더욱 特記할 事實로서、 東方禮義之國이란 榮譽를 누리게 된데도 크게 寄與하였든 것이 틀림없다。

始祖以後 七代까지는 孤單한 獨身으로 이어왔지만、 八世에 이르러 大司成公 諱 子庶、 文莊公 諱 混、 典書公 諱 子華의 三兄弟분이 다 赫赫한 出世를 하시고、 그후 子孫들이 日就月將으로 繁盛·顯達한 까닭에、 필경 三派로 分族되었다。 그리고 文莊公은 高麗 元宗 때 그 功勳에 依하여 禮安伯의 封爵을 받으셨으므로、 그 後孫들이 本貫을 全義로부터 禮安으로 移籍하게 되었다。 그러나 全義·禮安이 같은 血族임에는 틀림 없음으로、 지금으로부터 二十餘年前 戊戌(一九五八) 大同譜를 編纂하기에 앞서、 花樹會도 大同團結할 必要를 切感하고、 全義禮安李氏花樹會란 全氏族을 統合한 團體를 結成하였든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人間生活에 있어서는 記錄이 重要한지라、 우리 先祖들께서 여러 차례 族譜를 編纂하기에 心血을 傾注하신 일은、 그 生生한 記述이 各譜牒에 添附된 序文과 跋文 中

에 詳細히 남아 있으므로、여기에서는 重複을 避하기 爲하여 省略하기로 하고、다만 이번 族譜는 時代의 要請에 따라、內容이나 體裁를 大幅 現代化하여 그 面貌를 一新하게 하였다는 것을 添言하여 둔다。

다음으로 强調하고 싶은 바는 花樹會로서 해야 할 일과、또는 族譜發刊의 意義를 明確하게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이다。花樹會의 基本目的은 첫째 先祖를 崇慕하여 感恩報本의 誠意를 最大限 發揮시켜야 할 것이요、둘째로 現存하는 同族끼리는 寸數如何를 莫論하고 單位家族과 같이 和睦하고 親密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다같이 始祖 한분의 血肉을 이어 받은 後孫이란 點을 强하게 認識한다면、自然 親睦은 거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셋째로는 門中의 後進들을 잘 啓導하여、앞으로도 우리 宗族 中에서 濟濟多士한 人物이 續續輩出할 수 있도록 可能한 方法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族譜編纂의 意義는 위에 보인바 세가지 目的을 十二分 達成하기 爲하여도 絶對 必要한 것이다。혹 요사이 젊은 世代 중에서는 大家族制度의 弊害를 力說하면서、族譜 乃至 宗事에는 全然 無關心한 態度를 取하는 이를 종종 볼 수 있게 되지만、이것은 그 하나를 알고 그 둘을 모르는 妄想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 世上의 무슨 일이든지 百가지 長點만을 가지고、조금도 短點이 없는 일은 없는 법이다。아무리 좋은 寶刀라도 이것을 잘 쓰면 人間生活에 큰 裨益을 가져오고、잘못 쓰면 큰 害毒을 끼치게 되는 것은、거의 普遍的인 理法으로 되어 있다。

族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무엇보다도 크고 重要한 일은、族譜를 通하여 先祖들의 事蹟을 알아야만 自我를 正確하게 認識할 수 있게 된다。어떤 事物을 올바로 認識하려면、눈 앞에 나타난 皮相的인 現實만으로는 그 眞相을 올바로 把握할 수 없다。다만 表面的인 觀察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그 事物의 根源(始發)과 由來를 알지 못하고는 그 ②眞諦를 正確하게 認識하였다 할 수 없는 것이다。우리 自身도 歷代先祖들의 行狀과 業績과 遺訓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오늘의 存在인 自身도 그 眞正한 實相의 認識이 不可能하게 된다。따라서 그 所行과 實踐이 意外의 脫線과 失敗를 가져오게 된다。自我의 正確한 認識、透徹한 使命感、人生으로서의 高貴한

目的을 設定할 수 없으며、다만 近視眼的인 淺見으로 所謂 醉生夢死의 虛無한 一生을 살아버리고 말게 된다。

先祖의 事跡을 잘 앎으로써 自信이 생기고、矜持가 심어져서、先祖를 辱되게 하지 않고、그 遺德을 더욱 顯彰하여야 하겠다는 決意가 굳어진 다음에、비로소 올바른 人生、價値있는 一生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그렇지 못한 사람은 無謀와 虛慾과 妄動으로、前萬古에 없었고、後萬古에 다시 되풀이할 수 없는、오직 이때 한번만의 貴重한 人生을 虛無하게 살고 가게 될 것이니、이 얼마나 痛嘆할 일이며、深刻한 問題인가。이러한 點에서 우리는—걱어도 우리 同族들은 族譜를 通하여 先祖를 알고、따라서 나 自身을 알고、나아가서 宗親 사이의 敦睦의 길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面에서 오늘날 文明한 國民들은 祖上에 대한 歷史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우리나라의 發達된 譜學은 그들의 羨望의 的이 되고 있다。이것이야말로 우리 民族의 文化的 財産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다。

李氏王朝의 가장 賢明한 聖君이요、우리 先宗 중 뛰어난 孝子인 孝靖公(諱 貞幹)에게 『家傳忠孝 世守仁敬』의 八字를 親筆로 써서 下賜한바 있는 世宗大王의 御命으로 編述된 龍飛御天歌(一四四七) 第二章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의 一節이 있다。

불휘 기픈 남ᄀᆞᆫ 브ᄅᆞᄆᆡ 아니 뮐씨 곶 됴코 여름 하ᄂᆞ니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곱고 열매가 많으리니)
ᄉᆞᄆᆡ 기픈 므른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씨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마르지 않으므로 江이 되어 바다에까지 이르리니)

(根深之木 風亦不拔 有灼其花 有蕡其實
源遠之水 旱亦不竭 流斯爲川 于海必達)

이것은 李氏가 王朝를 創建하게 된 것은 그 祖上들이 높고 큰 德을 쌓은 덕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讚頌한 同時에、앞으로 繼承될 그 後孫들에게 그 뜻을 잘 銘心하여 先祖가 끼친 陰德

에 어긋남이 없어야 永遠히 隆盛하게 될 것이라고 警戒한 노래다。 우리 宗親과 後孫들은 可히 ③他山之石을 삼을만 하다고 여겨진다。 己未(一九七九)年六月 日 大匡太師聖節公 二十七代孫 熙昇은 삼가 再拜하고 적는다。

註 ①文野：文은 文化、文明、野는 朴野(未開한 모습)、野蠻、文化的인가 野蠻的인가의 區分。
②眞諦：참뜻이 없는 眞實한 道理、여기서는 實相、佛敎經典에서 나온말。
③他山之石：他山에서 나는 거친 돌이라도 나의 玉을 가는데 도움이 됨。

己未大同譜 序

歲 黃馬(戊午)冬에 우리 大同譜를 編輯할 즈음 派別序文이 있어야 한다고하여 宗中 諸賢이 나에게 序文을 지으라고 請하여 왔다。 내가 元來 不文淺識으로 어찌 敢히 叙言하리오마는 禮安氏 世譜인즉 吾家祖先께서 始終 主幹하신바이라 歷史的 事實과 아울러 先父祖 膝下에서 見聞한 바 있어 우리 祖上님의 由來를 몇가지 밝혀두고자 하는 바이다。 아득한 옛날 먼 唐나라 道僧 朱昊 禪師가 우리 江山을 遍踏中에 錦江 長岐臺나루에 이르러 天藏地秘의 靈穴을 우리 祖上님께 指占하여 주셨으니 禪師의 넓으신 德은 오로지 거 하늘위의 極樂界에서 聖禪道를 누리실 것을 믿어 疑心치 않는다。 人生은 짧고 歷史는 길다는 哲言처럼 사람은 古今이 다르지만 江山은 依舊하되 우리 公州先塋의 歷代를 未詳이라 百代後孫이 嗚呼 恨스럽도다。 人家世代의 變遷과 隆盛에 따라 우리 始祖 高麗 開國功臣이신 全義李太師公 諱棹字 할아버지 以後로 名相賢將이 繼繼承承되어 千有餘載의 風雨乾坤에 明明德蔭이 그칠사이 없어서 우리 祖先의 燦爛한 歷史中에 家傳忠孝 世守仁敬이라고 御讚을 받은 孝靖公 當時의 光榮은 自負할 수 있을 것이다。 文莊公 先祖께서 姪인 文義公을 訓戒한 詩에 『恩義와 愛情이 어찌 다를 바 있으랴 멀거나 가까움을 말하지 말라』(恩愛何曾異親疎且莫論)고 하셨으니、우리宗族으로서는 敦睦의 精神을 涵養하여 이나라 이 民族의 模範的인 氏族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 同時에 同域以北의 宗親들이 하루빨리 우리 花樹香蔭에 함께 즐기도록 希望함과 아울러 努力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崇禎甲戌(一六三四)

年에 名賢이신 傍先祖 淸江公(諱濟臣)께서 全義氏世譜를 創刊하시고、崇禎乙卯(一六七五)年에 我先祖 孤山府君(諱惟樟)께서 禮安氏世譜를 草創하시어 兩貫氏族이 其先은 兄弟요 兄弟其先은 一人이라는것을 밝혀주셨음으로써 오늘에 이르러 大同譜刊行의 榮光을 갖게된것이다。敦信家風 團欒한 情趣를 누리게됨은 오로지 드븐 先祖의 明哲하신 創業精神의 餘蔭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禮安氏의 移貫된 原因을 考察하건데 高麗末 禑王代의 國權傾覆期에 頹廢風潮를 틈탄 貪官汚吏의 主役格인 廉興邦氏의 奸凶變亂에 휩싸여 九族將滅의 患을 免하기 爲하여 率眷避身하지 않을수 없는 處地에서 臨機應變한것으로 生覺된다。이는 我先祖 典法判書公(諱竦)과 奸臣 廉氏와의 男妹間 姻戚關係로 被禍됨을 보고 先祖 提學公(諱翊)께서 남은 子孫을 거느리고 全義의 本貫을 버리고 禮安으로 移貫한것으로 斟酌할수 있다。當時의 環境을 살펴본다면 奸凶患亂에 連坐될것은 必然的인 事實이라고 생각되고도 남음이 있다。더욱이 翼襄公兄弟分(諱葳 諱韞)은 童蒙時節에 可憐한 處地에서 한 山僧이 哀視하여 穴于巖而得全이란 史記로서 當時의 家勢가 危機一髮이었음을 알수있어 말하기 조차 悚懼스러운 바이다。또 大同譜刊行에있어 承安君派 迎入에 對하여 年代的 考證에 依하여서 先祖 東巖叟公 第四子 舍位에 同譜하게됨은 衷心으로 歡迎하는 同時에 우리先祖의 同氣脈으로서 風雨同疆 幾百春秋에 奉越相視하여 온 그동안 祖上님들을 원망스럽게 생각한이도 있었으리라。또한 加平에 世居한 全平君(諱慶楨)後孫들이 지금에 비로소 大同譜 同族序列의 正立된 한페이지를 차지하게 됨은 오로지 古典考證과 文化發展의 惠澤이라고 하겠으며 往古 幾百年間 塗人視하며 지낸 歲月이 恨스럽다。지금으로부터 約 五十五年前(一九二三) 全禮兩氏 宗約所를 組織하고 月刊誌 宗約彙報를 發行하며 처음으로 大同譜를 營刊할때에 各派의 名望碩士가 會合選任되었고 吾 王考上舍府君께서 校正役에 主幹하시다가 甲子(一九二四)仲春에 罔極 謝世後에 譜事代役의 未詳한 蹉跌로 因하여 吾先祖 文莊公이 『不幸無后』라는 書札이 謄載된 上系譜册이 刊印頒帙 되었음에 我先考府君께서 이를 發見하시고 先祖提學公(諱翊)以下 祖先에게 羞侮的이며 大義名分의 잘못된 點을 들어 卽時 門會에 通하고 先君께서 喪身이심에도 不拘하시고 當時 譜所를 主幹하신 軫鎬氏와 相面合議하신 結果 잘못된 點을 改正 再刊

하기로 決定되었으나 改刊에 莫大한 費用이 問題가 되어 恨스럽게도 有終의 美를 걷우지 못하였다。 淸江公께서 全義氏譜를 創刊하실적에 文莊公後系가 出現하지 않음을 가장 恨歎스럽게 여기는 心情에서 協力하는 外裔間의 通情書札이 謄載된것이 明白한 實情이라고 認證되는 바이다 自今數十年前(一九五八)의 戊戌大同譜에 如前히 『文莊公 不幸無后』라는 文蹟全文을 빼지아니하고 當該文字個所에 ○○의 伏字만으로 刊行되었으니 眞實로 寒心事이며 慨歎스러운 바이었다。 우리 提學先祖 後孫으로서 그 大同譜 刊行에 協助한 人士가 있다고하면 抑何心情인가? 물고 싶다。 今番 大同譜에 前述한 不快文蹟을 두고서는 大同譜에 不參하기로 決心한바 있어 우리派 諸族이 大多數不同하기로 決議되었던것이다。 多幸히 今春 恪心寺의 享禮時日에 譜所任員 全員이 祭祀後 對坐相議한 結果、己往의 穩當치않은 文蹟은 一掃하기로 된바에야 還心同譜하기로 內心으로 定하고 不同諸族에게 諒解를 求하여 修單하게 된것이다。 이것은 우리들 한世代의 歷史的 使命이다。 한 宗族으로서 社會的 發展과 아울러 後日에 父老祖先을 對할 面目이 서게끔 敦親和族의 誠力을 서로 기우리기를 바라 마지아니한다。 이제 이룩되는 大同譜에 誠心으로 勞苦를 不辭하신 當務任員 諸賢에게 感謝하는 同時에 禮安氏 世譜에 對하여 始終 主幹하여 오신 祖先의 後裔로서、所感의 몇가지를 叙述하고 다음 檀箕舊國三千里에 到處吾宗이 花樹春이라고 읊어 둔다。 歲 戊午(一九七八)冬 至月에 達城旅舍에서 文莊公二十二代孫 尙善은 謹序함

己未大同譜序

夫人之有祖如木之根水之源也其根厚則枝葉必茂其源深則派流長遠厥祖善賢則後孫昌盛此乃亘萬古而不易之理也昔我始祖 太師公以王佐之才佐麗太祖統合三韓拯民於水火之中安邦於盤石之上巍功昭著於史乘垂裕於後昆者大矣至于今千有餘年後裔繁衍高官大爵上下相承鴻儒碩德前後相望蔚爲東方之巨族豈非始祖積善餘蔭歟粵自始祖七傳而三派始分長曰大司成公派仲曰文莊公派季曰選部典書公派也其

後長季兩派　成宗朝修譜事　宣祖朝刊事　仁祖　英宗兩朝重修而分譜文莊公派以分貫元不同譜矣去戊戌三派始合譜而事蹟詳載故今略之也盖緦功之親盡則情盡情盡則歸於路人矣何以辨昭穆明本支乎故程子曰惇宗族厚風俗使人不忘本須是明譜法宗中老少悉遵程夫子之言僉議詢同遂設大同譜所于京城而選出誠篤於爲先者爲有司不計寒暑勤攷執務閱二春秋而功訖譜凡十册也其編次方式比前發明簡略昭詳間用國文解繹無難代金廉而帙簡家家奉審容易矧又禮安派承安君派之同譜非但該派之宿願也實副大同譜之本義也彰世年今八旬聾尤甚未能助其萬一而因舍弟定世詳聞終始修譜之顚末故妄僭略叙所感于心者如右然地限南北在北之宗族今不得同譜勢所然也可恨矣惟願僉宗以今日修譜之心藏如龜玉勿爲虫鼠所汚隨暇盥手奉讀則蘇老泉所謂孝悌之心油然而生矣僉宗胥勗哉檀紀四三一一年戊午十月小雪節選部典書公二十一世孫彰世謹序

（譯文）

생각하건데 사람에 있어서의 할아비는 나무의 뿌리와 같고 물의 源泉과 같다。그 뿌리가 튼튼하면 枝葉이 반드시 茂盛하고、그 源泉이 깊으면 물줄기의 흐름이 길고 멀것이다。이와같이 그 할아비가 착하고 어질면 後孫이 昌盛하는 것이니、이것은 萬古에 걸쳐 바뀌지 아니하는 理致이다 옛날 우리 始祖 太師公께서는 帝王을 輔弼할만한 才能을 지닌 어른으로서 高麗太祖의 三韓統合 大業을 도와서 百姓들을 水火속에서 건지고 나라를 盤石위에 올려놓은 偉大한 功績이 歷史와 家乘에 分明하게 실려있고、後孫들에게 너그러운 福祿을 드리워주신바 크다고 할수있으니、지금에 이르기까지 千餘年에 걸쳐 後裔들이 繁盛하여 高官大爵이 代代로 繼承되고、學問과 德行이 높고깊은 선비가 서로 바라보일듯이 連續되어 뜨렷이 東方의 巨族이 되었으니、아것이 어찌 始祖의 積善하신 餘蔭이 아니겠는가？始祖로부터 七代를 내려와서 처음으로 三派가 되니、맞은 大司成公派이고、다음은 文莊公派이며、끝이 典書公派이다。그 後에 長派와 季派가 成宗때에 처음으로 譜牒을 編修하여 宣祖때에 이것을 刊行하였으며、仁祖와 英祖 두 王朝때에 譜牒을 重修하였고、또 派譜로 나누어 編輯하기도 하였다。文莊公派는 貫鄕을 달리하였기로 元來 同譜하지 아니하였던것인데、戊戌(一九五八)年에 三派가 비로소 合譜하였고 그 事蹟은 그 譜牒에 자세하게 실려있음으로 여기서는 省略한다。大概 喪服制度의 三個月服(緦)이나 五個月 또는 九個月 服(小功大功)에 該當하는 近親이 無服親이 되면 情답지 아니하게 되고、情답지 아니하게 되면 경거리에서 지나치는 남남끼리와 같이되고 마는것이니、무엇으로 昭穆을 밝히고 宗派와 支孫의 系統을 밝힐수 있겠는가？아러한 까닭으로 程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宗族이 敦睦하고 風俗이 淳厚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根本을 잊지 아니하게 한다고 하였으니、이것은 族譜의 規例와 義意를 밝혀 놓은것이다。宗中의 老少 모두가 程子의 말씀을 옳다고 생각하고、會議를 열고 뜻을 모아서 서울에 大同譜所를 設置하고、爲先事業에 뜻이 굳고 정성스러운 族親들을 有司로 選出하여 編輯에 着手하여、촉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부지런히 또 着實하게 二年등안 努力하여 일이 끝나니、譜牒이 모두 二十一卷 十册이다。이번의 編輯方式은 前番에 比하여 簡略하면서도 昭詳하고 또 國文을 섞어서 解義에 어려움이 없고、頒帙料는 低廉하며 册帙이 簡便하게 되어서 家系를 찾기가 아주 容易하게 되었다。그리고 禮安派와 承安君派와의 同譜는

非但 當該派의 宿願일뿐만 아니고 眞實로 大同譜라는 本旨에도 알맞는 일이다。 彰世는 나이 八十이나 되어 눈이 어둡고 귀도 멀어 이 課業의 萬分의 一도 도와 주지 못하였지만、 舍弟 定世를 通하여 처음에서 끝까지 修譜의 顚末을 들은바 있음으로 僭濫함을 무릅쓰고 마음속 깊이 느낀 바를 위와같이 叙述하는 바이다。 그러나 굉이 南北으로 갈리어 以北에있는 宗族은 이번에 同譜할수 없게된것은 形便上 不得已 한바이지만 恨스럽기 그지없다。 다만 願하는 바는 오늘 修譜하는 마음을 본받어 龜玉(寶玉)처럼 정성스럽게 譜牒을 保全하여 毁傷시키지 말고 름이 있는대로 손을 씻고 공경스럽게 閱覽한다면 蘇老泉이 말씀한 바와같이 孝悌할 마음이 구름일듯 가슴속에 솟아 날것이니 여러 族親들의 서로 힘쓰시기를 바란다。 檀紀四三一一年 戊午(一九七八)小雪節에 選部典書公 二十一代孫 彰世는 삼가 序한다。

大同譜刊行辭

花樹會나 大宗會의 存立目的은 大體로 三大綱領下에서 設定되는 것이니、 卽 闡先、 敦睦、 啓後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氏族의 根幹인 祖先의 由來와 業蹟을 後孫들에게 正確하게 알려서 自身의 所自出을 깊이 認識시킴으로써 先天的인 素質을 깨닫게 하여야 하고、 둘째로는 貫鄕을 떠나서 各地에 흩어져 살고 있는 宗族들이 한 핏줄이라는 義理와 情誼로써 鞏固히 團結하여 親和와 敦信의 緊密한 紐帶를 끊지 말어야만 共同運命體로서의 相互扶助의 氣風으로 發展과 向上을 促進시킬수 있다는것이며、 셋째로는 既成世代보다 믿브고 훌륭한 다음世代를 養成하여 國家와 社會의 發展에 寄與할수있는 人格과 知識을 갖추어 즉기 爲하여 有機的인 經綸의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는 相互 連鎖的關係에 묶여 있어서 어느 하나가 未備 缺如되더라도 다른 두가지는 아무 意義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說使 어느 한가지가 遂成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두가지의 併進이 없이는 멀지않어 무너지지 않을수 없는것이니、 이것은 세가지가 各各 獨立될수 있는 것이 아니고 一蓮託生、 一氣同體이기 때문이다。 祖先을 崇仰할줄 모르는 이가 族親間의 敦睦을 重視할 理가 萬無하며、 또 子孫의 發展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根源잃은 우물을 파는것과 다를바 없어서 眞正한 成果를 거둘수는 없을 것이다。 이 세가지 德目은 솥발처럼 花樹會의 目的을 支撐하는 힘이라고 하겠다。

우리 花樹會도 이 세가지 目標를 向하여 浮沈하였으니、 그 前身인 宗約所가 壬戌(一九二二)

年二月에 創立되었지만 丁卯(一九二七)譜의 刊行에 失敗함으로써 有也無也로 褪色된것을、光復後 三年만인 戊子(一九四八)年 九月에 花樹會로 再建하여 前後 五十有七個 星霜을 거쳐왔다。不肖가 花樹會에 參與하게 된것은 庚戌(一九七〇)年頃부터이고、理事長으로서 視務하게된 것은 壬子(一九七二)年 十一月부터인데、淺薄未熟으로 이 重責을 堪當하기 어려워서 累次 辭讓하였지만 받어 들여지지 않어、不得已 就任하면서 責任을 졌으면 일을 하여야 하겠기에 當面課業 몇가지를 構想發表한 바가 있었으니、첫째、頹圮荒凉하여 뜻있는 後孫이 悚懼스러워 하던 公州 全義 두곳 先塋과 齋舍를 改修하고、太師公遺墟碑 所在地로서 貴重한 史蹟地인 李城山을 回復하여 闡先의 基本을 닦자는 것이며、둘째、花樹會의 地方組織을 擴大强化하여 共同同一目標를 爲하여서는 京鄕의 會員이 一絲不亂의 體制下에 行動統一이 될수 있도록하여 敦睦의 契機를 整備하고、定期總會의 代議員制 採擇으로 地域代表의 衆智를 糾合하자는 것이고、셋째、現代式 大同譜를 刊行 普及하여、傳統과 道義를 輕視하는 頹廢風潮에 물들기 쉬운 少壯後進들의 感情을 保護함과 아울러 眞正한 自我의 再發見을 促進하며、넷째、奬學制度를 確立하여 學資에 窮한 有爲後進의 濟渡와 養成을 恒久的으로 保障하자는 四大目標를 設定한 것인데、이것은 우리 宗族의 年來의 宿願이며 또한 不肖의 平素의 꿈이기도 한것이었다。

그後 多幸스럽게도 蔚然한 共感을 얻어、熙元副會長과 三豊建設産業의 鐏社長(理事)의 全幅的인 支援으로 癸丑(一九七三)年 十月에 全義墓所 및 神道碑의 石物補完과 階砌擴張等 環境을 劃期的으로 改修할수 있었고、이듬해인 甲寅(一九七四)年 九月에는 若干의 私費로 公州墓所의 石築除去와 階砌擴張等으로 塋域의 原形을 復元하여 典型을 安定시켰으며、建築後 손을 대지 못한 永慕齋에 塗粧과 設門等 全面補修를 加하여 目前의 緊急事態를 收拾함으로써 參拜會員들의 愁眉를 펴 드리고、祖先崇仰의 첫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提示하였으며、以來 市道、地區支會와 市郡分會의 組織에 拍車를 加하여 乙卯(一九七五)年 定期總會부터 代議員制가 實現되었으며 丁巳(一九七七)年 봄까지 大體로 全國組織의 骨格形成이 끝나서、드디어 그해 五月 第三次 定期代議員大會에서 數年來 企劃하여 오던 大同譜의 刊行을 決議하고 刊行委員會의 創立과 아울

러 各市道、地區支會의 組織을 서들러서 九月一日 本部事務局을 開設하게 되었다。爾來 戊午(一九七八)年末까지 凡 十六個月 동안에 市道、地區支會의 눈부신 活動으로 收單과 原稿作成이 大體로 完了되었는데、收單에 있어서는 當初豫想인 七五、〇〇〇名에서 約 九、五〇〇名이 超過된 八四、五〇〇餘名에 達하여 戊戌譜때의 約三〇、〇〇〇名에 比하여 約 二、八倍로 늘어났고、譜牒豫約은 當初豫想線인 三、〇〇〇 乃至 五、〇〇〇帙에서 六、五〇〇帙에 肉迫하여、戊戌譜때의 約六倍로 부러나는 盛況을 보였다。他姓譜所의 例를 보면 이 程度의 收單과 原稿作成이라면 빨라서 四、五年이 걸린다는 것인데、이처럼 短時日內에 進陟된것은 地方組織普遍의 偉力도 充分히 發揮되었지마는、우리宗族의 旺盛한 團結의 程度를 中外에 誇示한 것으로서 實로 感激과 敬意를 禁할수 없다。拙速을 警戒하면서 文獻의 國譯併載와 宗族文化財의 畵報와 아울러 約 九、六〇〇頁을 十冊으로 壓縮하여 體制와 裝幀을 最新式으로 꾸며서 共同事業的 規模로서의 低廉한 料額으로 出版 頒帙된다면 이에 隨伴하여 經費의 節約과 有力基幹會員의 主導로 奬學制度의 設置도 兼하여 形態가 가추어 지리라고 믿는 바이며、國有로 되어있던 李城山을 梧倉門中에서 賃借管理 十餘年만인 戊午年末에 清江公(諱濟臣)派花樹會의 全額贊助로 拂下方式에 依하여 完全回復하였으니 宗族의 宿願이며 不肖의 꿈이던 四大緊要事業이 六、七年만에 아쉬운데로 于先 이룩어지는 셈이어서、스스로 欣快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이다。

생각건데 族譜의 刊行은 始祖以降 各派의 昭穆을 밝히고 祖先의 遺蹟을 正確하게 記述하여、系統의 歷程을 쉽게 알수 있도록 꾸민 宗族史라는 從前의 槪念에서、輓近 進一步한 世界的 重大意義가 賦與되었다는 事實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族譜란 自身의 血統證明書이다。始祖께서도 先祖가 있었겠지마는 記錄化以前의 일은 論外로하고 始祖以降의 直祖와 外家系의 許多한 遺傳因子가 代代로 承繼되어 오다가 自身이라는 個體가 誕生된것이니、自身은 內外家系의 遺傳因子가 複合集約된 體質과 知能指數의 保有者인 것이다。兩家系의 遺傳因子中에는 氣質처럼 不變的인 要素와 性情처럼 可變的인 要素가 相乘 또는 相殺作用하여 體質의 優劣强弱과 智能의 賢愚明暗의 差가 생기는 것이니、優秀한 後孫을 待望한다면 優秀한 配偶를 選擇하는 길밖에 더

좋은 方策은 있을수 없고、優秀한 配偶란 自身의 靈肉機能上의 過不足을 加除補完할수 있는 體質과 性情을 갖춘이어야 함은 勿論、地政學的으로도 깊은 考慮를 要하는 것이다。自身 또는 相對者의 心身에 潛在하는 여러가지 要素를 科學的根據에서 正確하게 抽出하는 길은 關聯族譜의 記錄을 分析、綜合하는것이 가장 確率的인 手段인 것이니、卽 祖先의 物心兩面의 傾向과 時代的 背景에 反射된 思想的、社會的 活動範圍와 地位라던가 體質의 强弱과 疾病과 壽夭와 特技와 職能等을 綿密하게 分析、綜合한다면 지금까지 스스로 모르고 있던 自身의 眞面目을 再發見할수 있으며、따라서 最適한 配偶는 어떠한 異性이어야 하는가를 쉽게 判斷할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選擇한 配偶와의 사이에서는 心身 共히 優秀한 子女를 얻을 公算이 크며、그 子女는 適性에 따른 敎育訓鍊으로써 大成시킬수 있다는 結論에 到達할 것이다。過去를 暫問 도라보면 所謂 婚閥이라하여 自家와 비슷한 隣近의 家門과 代代로 婚姻을 거듭함으로써、同一品種을 同一耕地에 連作하여 品質과 收獲을 低下시키는 것과 마창가지로、隣接相婚의 中毒現狀을 이르켜서 子女들이 累進的으로 虛弱衰殘하여 졌음을 우리는 體驗을 通하여 알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西歐에서는 特別한 家系外에는 族譜가 드물었는데、最近 이와같은 멘델의 學說에 依한 遺傳法則을 援用하여 偉人의 出現도 하늘의 攝理에만 맡겨 들것이 아니고 人爲的으로도 輩出시킬수 있다는 無限한 可能性的 論證에서 새삼스럽게 뿌리 찾기와 族譜의 編修에 至大한 關心을 기우리는가하면 先進 綜合大學에는 系譜學科가 設置되었고、約一世紀前에 創立된 世界系譜協會에서는 三十餘個國으로부터 六十餘萬種의 族譜를 蒐集하여 美國의 쌀트레이크市 附近의 地下 三百尺 石室에 保管하고 三百臺의 閱覽台에서 一般의 閱覽에 供하고 있으며、우리 戊戌譜도 丁巳(一九七七)年 여름에 複寫 納本되었지만 멀지않은 將來에 關係族譜의 記錄을 電子計算機(컴퓨터)에 넣어 各自의 適性抽出이 容易하게 될것으로 展望하게 되었으니、族譜란 理想的 人類改造의 唯一한 資料로서 至極히 貴重한 寶典임을 알수있어 浮薄한 外來思潮에 휩쓸려서 傳統과 族譜를 輕視하는 傾向이 짙어가는 우리社會에는 實로 痛烈한 頂門의 一針이되는 놀라운 消息이 아닐수 없다。이처럼 族譜는 科學文明의 그늘속으로 밀리다가 뒤늦게나마 햇빛을 보게

됨에 臨하여、族譜를 創刊하시고 續刊하신 祖先의 慧智에 對하여 스스로 머리가 숙여진다。 族譜의 科學的 活用으로서 祖先이 끼쳐주신 精神的 遺産으로 現世代가 富强하게되고 宗族의 總和 總團合으로 無에서 有를 創造하고 나아가서는 다음世代부터 有爲有能한 人材가 斗量으로 쏟아져 나게되면 이 어찌 아름답고 갸륵한 일이 아니겠는가?

끝으로 懇曲히 바라는바는 現代感覺에 副應할수 있도록 編輯하기 爲하여 年中無休로 精進腐心하여온 이 大同譜가 우리 宗族에게 널리 閱覽되어 族譜만이 간직하는 自我再發見의 열쇠를 찾어내어 우리들의 血管속에 脈脈히 鼓動하고 있는 不可變的 氣質과 特性이 무엇이며、그것이 忠孝仁敬이라면 時代의 進運에 어떻게 調和適應시켜 나갈것인가? 의 門을 열어、子孫萬代의 經綸과 進路의 定立에 誤算이 없도록 힘쓰게 되어지이다 하는 것이다。 特히 이번에 同根인줄 알면서도 合譜하지 못하였던 承安君派의 迎入과 禮安 副正公派의 合流等이 千年來의 宿題를 快히 解決한 셈이 되어 매우 기쁜 일이지만、가고 올수없는 以北의 宗族들은 이 大同譜의 刊行事實마저 모르고 있을것이며、中間에 不幸하게도 亡失한 先系를 끝내 찾을수 없어 後日로 미룩게된 數十家門의 心情을 생각할때에 또한 슬프고 딱한 일이다。 始終 企劃과 收單과 編輯과 校正과 頒帙에 全力投球하여 온 本部 事務局과 支分會의 當務任員 여러분의 勞苦에 對하여 滿腔의 慰拊와 謝意를 表하면서 所懷몇가지를 엮어 刊行辭에 가름하는 바이다。 戊午(一九七八)年 臘月

全義 禮安 李氏花樹會本部理事長 兼 企 大同譜刊行委員會委員長 信澔는 삼가 적는다。

全義 禮安 李氏族譜 第一卷 首編 上系 四派合編

太師公 七代孫 東巖叟公 一子 大司成公 子瀁 二子 文莊公 混 三子 典書公 子華 四子 承安君 之氐

一世 李棹

初名은齒 高麗統合三韓開國翊贊二等功臣三重大匡太師全山侯諡는聖節○輿地勝覽에따르면 高麗太祖의後百濟親征軍이 錦江에이르렀을때에 洪水로南進길이막힌것을 公께서渡河策을 主導한功이크므로 棹라고賜名하였다고한다

配府夫人陜川洪氏 父宰臣淑○墓忠南燕岐郡全義面柳川里山三番地의一內丁坐○中宗壬辰(一五三二)에 十五代孫 龜齡이本道監司때에碣石을세웠는데 年久催折되니 宣祖戊寅(一五七八)에 十五代孫依仁이本縣縣監때에다시 碣石을세웠으나 陰刻記錄이年久耗損되었고 肅宗丁亥(一七〇七)에 二十二代孫弘擧가本道兵使때에至碑를세워 前後三碑가있다

光復後 癸丑(一九七三)年에 後孫 熙元과 鎭이 床石、封石等 石物을 補完하고 階砌을 大擴張하여 環境을 一新시켰다

二世 子康

精勇衛大將軍

配郡夫人密陽朴氏 父處置使 安老

精勇衛大將軍으로 東巖叟公까지의 六世와 그 子이신 大司成公、文莊公 및 典書公 伯仲季 三位의 墓所를 모두 失傳하였기로 光武後 癸亥(一九二三)年 九月에 宗約所에서 諸孫이 合議하여 太師公墓所의 外靑龍麓에 追遠壇을 叛設하고 해마다 香火를 받들어서 永慕하는 뜻을 펴고있다

三世 子秀英

兵部尚書

配郡夫人淸州韓氏 父奉御 渥

四世 子文景

千牛衛大將軍

配郡夫人驪興閔氏 父政丞 世勤

五世 子允寬

刑部侍郎○高麗成宗戊子(九八八)年에 議務廳에서公이學士吳仁裕 侍中李寵進 南宮元淸과더불어 王께五廟와社稷을세우고 國子監을叛設하므로奏請하였는데 모두中華의 制度를 따르기로하였다고 高麗史와集賢殿大提學王思昌이지은吳文襄公의墓誌에 실려있다

配縣夫人南平文氏 父閥門祇侯 侯軾 祖 平章事 克謙 曾祖知中書門下省事吏部尚書 公裕 生二子

舊譜에는配位의父名이 子誼로誤記되었음을 戊戌(一一九八)大同譜刊行때에文氏譜牒에서考證하여 바로잡았다

后配縣夫人加恩邊氏 父立中 生一子

○萬歷譜에仲配에金氏 无育으로실려있다

註:南平文氏大同譜에 따르면 配南平文氏의 父는 閥門祇侯 侯軾이며 高麗仁宗丁巳(一一三七)生 神宗己未(一一九九) 卒이니 公의生年은 毅宗庚辰(一一六〇) 年頃으로 推定됨으로 成宗戊子(九八八) 議務廳云云은 錯誤인듯하다

六世 子誼

舊譜에는載錄되지아니하였으나 今次修譜때에 南平文氏大同譜의記錄에 따라 姚南平文氏가 二子 誼 伸을낳은것으로 되어있으므로바로잡는다

子孫无傳

子伸

子順

傑勝別將

配縣夫人陰城蔡氏 父中郎將 沖

七世 子仟

一作 阡 見 次頁